

# 2009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 1교시 언어 영역 •

1	3	2	2	3	3	4	1	5	2
6	2	7	5	8	2	9	2	10	5
11	3	12	4	13	5	14	1	15	1
16	5	17	2	18	4	19	5	20	4
21	1	22	2	23	2	24	3	25	5
26	3	27	2	28	4	29	1	30	2
31	4	32	3	33	4	34	3	35	2
36	5	37	2	38	4	39	3	40	2
41	4	42	5	43	5	44	4	45	1
46	4	47	1	48	1	49	2	50	2

### [듣 기]

<1번> 이제 여러분에게 아빠와 딸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빠** :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는데, 진로는 생각하고 있니?

**딸** : 네, 아빠. 전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아빠** : 오~, 그래. 그럼,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딸** : 글썄요....., 무엇보다 자신의 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빠** : 물론 그렇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어느 분야에서나 중요하단다. 그런데 과학자에게는 좀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니?

이 그림을 한번 보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림 1>을 <그림 2>와 같이 두 개의 사각형이 합쳐진 것으로 생각하지. 너 어머니? 혹시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딸** : 음~, 글썄요. 그냥 두 개의 사각형이 겹쳐진 것 같은데요?

**아빠** : 그림, <그림 3>을 한번 보래. 이런 두 도형이 합쳐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니?

**딸** : 어머, 정말 그러네요!

**아빠** : 자,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볼까? <그림 4>의 물병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딸** : 물병의 몸통 부분은 원기둥처럼 생겼는데, 윗부분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부피를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아빠** :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단다. <그림 5>처럼, 먼저 병에 물이 차 있는 부분의 부피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병을 뒤집어서 물이 병의 불규칙한 부분을 채우게 하는 거지. 그 다음 물이 없는 부분의 부피를 계산한단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더하면 병의 부피를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딸** : 아~, 이제 알겠어요.

**아빠** : 애야, 아빠가 무얼 이야기하고 싶은지 알겠니? 아빠가 생각할 때, 과학자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_\_\_\_\_.

#### 1.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 파악하기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딸에게 아빠가 던진 질문은 사람들이 지닌 일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대상을 바라보라는 의미와,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도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딸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2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실패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요. 또한 실패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은폐하면 동일한 실패를 되풀이하거나 더 큰 실패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는 실패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속성을 이해하여 극복함으로써 실패를 새로운 성공의 토대로 삼자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 바로 '실패학'입니다.

실패에는 교양이나 건물 등의 붕괴 사고처럼 부주의나 오만 때문에 발생하는 '나쁜 실패'가 있는가 하면, 토마스 에디슨이 신제품을 발명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성공을 거둔 것과 같은 '좋은 실패'도 있습니다.

'실패학'의 목적은 실패의 경험을 분석하여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지식으로 체계화해서 '나쁜 실패'는 재발을 예방하고, '좋은 실패'는 창조의 씨앗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학'의 성패는 실패를 은폐하기보다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문화의 조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문화가 잘 구축된 나라로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우주왕복선 켈린저호 폭발 사고를 계기로 미국 사회는 실패를 자인하고 분석함으로써, 실패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문화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예컨대 실패를 법률적으로 취급하는 사법거래제도를 갖추었습니다. 이는 실패한 사람에게 면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실패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는 법 제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의 가치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사회적 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패학'의 요체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외국의 '실패학' 연구를 거울삼아 '창조적 실패'가 21세기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 [출제의도] 강연을 듣고 중심 내용을 이해하기

강연에서는 실패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패학'을 소개하면서, '나쁜 실패'는 재발을 방지하고, '좋은 실패'는 창조의 씨앗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사법거래제도를 예로 들어서, 실패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패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성공의 가치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사회적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성공을 추구하는 풍토가 확산될수록 실패가 줄어든다.'는 것은 강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3번> 이번에는 라디오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문화의 향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문화평론가 이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전통 모자인 '갓'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서도 최근 갓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요, 특별히 전담하고 싶은 점이 있으셨는지요?

**이 교수** : 예, 조선의 '선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갓일 정도로, 갓은 단순한 모자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인의 유교 문화를 상징하는 소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갓이 표현하는 의미는 일종의 절충음을 보여주는 도덕성입니다. '갓 쓰고 망신을 당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갓은 쓴 사람의 인격이나 정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라고 하겠습니까.

**진행자** : 아, 그렇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갓이라 하면 웬지 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이 교수** :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실용적 입장에서만 보면, 갓은 이 지상에서 가장 모자답지 않은 모자에 속할 것입니다. 말총으로 망을 떠서 만든 것은 비나 햇볕, 그리고 바람이나 추위를 막기에는 너무나 얇고 투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갓의 멋은 썼지만 쓰지 않은 것처럼 머리가 완히 들어다보이도록 한 그 투과성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그런 뜻도 싶습니다. 갓에 그런 아름다움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이 교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갓이 순수한 장식성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갓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왕관처럼 보석도 박혀 있지 않으며, 사교장의 귀부인들이 쓰고 있는 모자처럼 우아한 꽃장식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은색 일변도인 그 갓은 극도로 형태와 색채를 절제하고 있지요. 단순히 보이지만 그 속에 다른 모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미의식이 깃들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진행자** : '바로 알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말처럼,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갓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3. [출제의도] 라디오 대담을 듣고 유사한 사례 찾기

대담에서는 갓이 한국인의 유교 문화를 상징하는 소재이며, 그것을 쓴 사람의 인격이나 정신을 표현하는 기호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단순히 보이지만 그 속에 다른 모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미의식이 깃들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갓이 지닌 속성은 실용적 측면보다는 정신을 담아내고 있으며, 단순함 속에 특유의 미의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욕의 정신을 보여 주는 소박하면서도 은은한 백자'가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4~5번> 이번에는 동아리 행사에 대한 토의의 한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여러분, 겨울 방학 전에 우리 '수화 동아리'에서 뜻 깊은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복지 시설 방문과 바자회 개최 중에서 어떤 행사를 실시하면 좋을지 토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학생** : 저는 복지 시설에 봉사 활동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힘들거울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보육원이나 양로원 등의 시설에 방문한다면, 작으나마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 시설의 일손을 도와 드리고, 아울러 우리 동아리원들이 갈고 닦아 온 수화 공연을 펼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학생** :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복지 시설에 대한 봉사 활동은 일회적으로 실시되는 것보다 연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하루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설 방문보다는 이웃돕기 바자회를 실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에는 복지 시설의 운영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바자회 수익금으로 그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남학생** : 바자회 수익금으로 복지 시설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뜻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봉사 활동은 '서비스 러닝' 즉, 봉사하면서 동시에 배운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자회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동시에 이웃 사랑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더욱 가치 있다고 봅니다. 사랑 나눔 행사는 하루 계획되어 있지만, 이웃 사랑의 정신을 배우으로써 더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학생** : 복지 시설 방문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동시에 배움의 기회로 삼자는 말씀이 신대요, 바자회를 통한 모금 활동에서도 배움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자회의 취지를 우리 주위에 홍보하는 과정, 바자회 물품을 마련하고 판매하는 과정, 그리고 얻어진 수익금을 소중한 목적에 쓰는 과정, 이 모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또한 바자회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동아리를 넘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웃 사랑의 정신을 확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자** : 두 분 모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설 방문 봉사 활동과 바자회를 통한 모금 활동 모두 의의 있는 활동인 듯합니다.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4.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점 파악하기**

사랑 나눔 행사에 대한 토의에서, 남학생 발표자는 복지 시설 방문 봉사 활동을 주장했고, 여학생 발표자는 이웃돕기 바자회를 주장했다. 남학생은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동시에 이웃 사랑의 정신을 배우는 것을 강조하였고, 여학생도 바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두 발표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랑 나눔 행사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이다.

**5.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바자회 개최를 주장하는 여학생 발표자에 대해, 남학생 발표자는 "바자회 수익금으로 복지 시설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뜻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봉사 활동은 '서비스 러닝' 즉, 봉사하면서 동시에 배운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상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학생 발표자의 발언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말하기나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의 동의를 이끌어 내려는 말하기 방식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학생 발표자의 발언에서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는 말하기 방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쓰 기]**

**6. [출제의도] 자료에서 연상되는 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에서는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연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적성에 맞는 학문 분야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연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

(나)는 귀농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내용이고, (다)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적게 누릴을 보여 준다. 이들 자료의 내용은 '도시의 문화 예술인들이 귀농해야 할 필요성'과는 관계가 없다.

**8. [출제의도] 개요를 바르게 수정하기**

'II-1-라'에서는 '표준 조리법의 개발 미흡'을 한식 세계화의 걸림돌로 지적하였다. '한식의 현지화를 위한 전략 메뉴 개발'은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표준 조리법의 개발 미흡'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9. [출제의도] 사례를 탐구하여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ㄴ의 '타고'는 '도로, 줄, 산, 나무, 바위 따위를 밟고 오르거나 그것을 따라 지나가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의 '타고'는 '바람이나 물결, 전파 따위에 실려 퍼지다'라는 의미이므로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표현한 것을 찾기**

'손을 내밀다'는 관용적 표현이고, '상처를 주다'와 '상처를 낮게 하다'가 대조적 표현이다.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봐'가 고민을 해결해 줄 조언에 해당한다. ①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대조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조언은 있으나 관용적 표현과 대조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고민을 해결해 줄 조언이 포함되지 않았다. ④ 대조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11.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㉔의 앞 문장은 유명 상표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뒤의 문장은 이 현상이 과연 바람직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문장을 순접 관계의 접속어인 '그리고'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문장 부호가 상황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탐구하여 이해하기**

㉔의 경우는 철수가 영희에게 햄버거와 피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묻는 것이므로, '불일'의 규정 중에서 선택적인 물음이 결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음표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쓴다.

[13~16] 현대시 제재

<출전> (가) 이용악, '그리움'

(나) 유치환, '해바라기 밭으로 가려오'

(다) 신경림, '산에 대하여'

**13. [출제의도] 시의 공통점을 파악하기**

(가)에서는 '내리는가'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내면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을 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되려오'를 반복하여 '해바라기'와 같은 의지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는 화자의 내적 지향을 강조하고 있다. (다)에서는 '아니다'를 반복하여 '높은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산'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다'를 반복하여 '낮은 산'과 같은 삶에 대한 화자의 내면적 지향을 강조하고 있다.

**14. [출제의도] 시상 전개상의 특징 파악하기**

[A]의 철길 위를 '밤새워 달리는 / 화물차', '눈 내리는가' 등에서는 동적 심상을 느낄 수 있고, [B]의 '진중일 짝소리 없이 / 삼복의 열천을 노리고 서서'에서는 정적 심상을 느낄 수 있다. ② [A]의 공간은 고향이라는 실재하는 공간이고, [B]의 공간은 화자의 의지를 표상하는 공간이다. ③ [A]에서는 지금 고향에 눈이 오고 있을까 궁금해 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이 '의지의 바다의 한 분신이 되려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A]는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이라는 구체적 공간을 떠올리고 있고, [B]는 화자의 내면을 의도적 공간 설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⑤ 둘 다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없다.

**15. [출제의도] 두 작품의 시어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나)의 '새에 서서'에서는 해바라기 밭으로 가서 해바라기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읽을 수 있으며, (다)의 '구경하고 싶다'에는 앞의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이라는 목적어를 볼 때 '단절감'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친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의 '노리고 서서'에는 '삼복의 염천'이라는 상황에 대한 태결 의지가, (다)의 '숨을 자리가 돼 주기도'에는 '깊은 쌍'에 대한 포용적 자세가 투영되어 있다. ④ (다)의 '낮은 산'은 '휘파람새'의 노랫소리를 듣는 즐거움을 아는 존재이므로, '낮은 산'과 '휘파람새' 사이의 거리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나)의 '해바라기'는 '호접도 못 오는 백주'에 서 있다는 점에서 '해바라기'와 '호접'의 거리는 멀다고 할 수 있다. ⑤ (다)의 '가파른 것'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눈부신 '백주' 역시 '호접도 못 오는'이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접근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16. [출제의도] 제재의 속성에 근거하여 시를 이해하기**

(다)는 '높은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산'도 있다는 사실의 인식을 통해 평범하고 소박한 삶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화자는 '높은 산'과 같은 고고하고 당당한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산'의 모습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더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산'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를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7~19] 생활과학 제재

<출전> 이종희, 「색은 약이다」

**17. [출제의도] 설명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색을 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제시한 후,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실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글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기'와 '리'가 적절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이 글에서는 색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영향이 어린이보다 어른에게 더 크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① 다섯째 문단의 '파란색 계열에 노출된 사람은 기억력을 활성화하는 두정엽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넷째 문단의 '핑크색 감방'이 수감자들의 공격적 행동을 약화시킨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이 글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이 '빨강'임을 언급하였으나, 붉은색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붉은색 조명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이 글과 관련이 없다. ② 혈압 상승의 요인 중에는 흰색에 의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였으므로, '혈압 상승에 주의해야 될 할아버지의 방은 되도록이면 백색 계열의 벽지나 가구를 피하여 구성한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④ '파란색'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진정 효과가 있다고 했으므로 '가족의 휴식 공간인 거실에는 파란색

계열의 양탄자를 깔아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20~23] 현대소설 제재

<출전> 황순원, 「목님이 마을의 개」

**20. [출제의도] 소설의 서술 시점 파악하기**

이 글은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속 이야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겉 이야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특히 이 작품은 겉 이야기의 1인칭 서술자인 '나'가 간난이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듣고 신동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⑤ 시점의 빈번한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21. [출제의도] 주요 인물의 태도 이해하기**

간난이 할아버지는 신동이 자기네 귀한 뒷간의 거름을 훔쳤을 것만은 틀림없는 일이라 여겼고, 동네 사람들처럼 신동이를 잡아 버린 것이라도 좁 입에 대어 보리라는 개인적 욕심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신동이의 새파란 불빛과 같은 눈빛을 보고는 '짐승이라도 새끼 뺨 것들 차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는 신동이의 눈빛을 통해 강렬한 생명 의식을 느낀 것이지, 무서움을 느꼈다고 할 수는 없다.

**22. [출제의도] 중심 소재와 공간의 관계를 통해 작품 감상하기**

어웃골은 동네에서 핍박을 받은 신동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무사히 새끼를 낳아 기르기 위한 피난처이자 안식처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네로부터 어웃골로의 이동이 새로운 갈등을 예고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⑤ 사람들에게 쫓겨났던 신동이 새끼들이 마을로 내려와 번성한다는 점에서 면면히 이어지는 끈질긴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23. [출제의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 이해하기**

'크고 작은 동장은 서쪽 산 밑 동네로 와, 차손이네 마당에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제각기 동물이 하나씩을 장만해 들게 했다'는 '크고 작은 동장'이 주동이 되어 신동이 사냥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 주는 구절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 사람을 '갈등과 대결의 원인 제공자'로 볼 수는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24~27] 인문 제재

<출전> 이훈구, 「심리학자가 들어다 본 인간시장」

**24.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내용을 이해하기**

이 글은 편견의 원인과 해소 방법에 대해 밝혔는데, 첫째 문단의 '정치·경제적 갈등 또는 경쟁은 집단적인 원인으로, 둘째 문단의 '전위된 공격'과 셋째 문단의 '성격'은 개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편견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원인으로도 발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첫째 문단에서 편견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알 수 있다. ② 첫째 문단에서 편견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학습에 의해 습득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편견은 주로 타인에 대한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은 이 글에 언급되지 않았다.

**25. [출제의도] 대상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둘째 문단에서 '좌절한 사람'의 특징은 원인 제공자를 대신할 약한 존재에 대해 공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셋째 문단에서 '권위주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타인이 나약한 것을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가 추하고 의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공통점은 '약한 존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이다. ① 좌절의 원인을 공격하는 것은 ②만의 특징이고, ①와는 관련이 없다. ② 외부의 자극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이고 ②는 관련이 없다. ③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참지 못하는 것은 ①이고 ②와는 관련이 없다. ④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강한 것은 ①이다.

**26. [출제의도] 사례를 통하여 글의 내용 적용하기**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A시 사람들의' 'B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집단 간의 경쟁에서 유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성격적인 원인으로 인해 강화되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다.

**27. [출제의도] 단어의 공통된 의미 파악하기**

'봉쇄(封鎖)'의 의미는 '굳게 막아 버리거나 잠금'이고, '차단(遮斷)'의 의미는 '액체나 기체 따위의 흐름 또는 통로를 막거나 끊어서 통하지 못하게 함'이며, '폐쇄(閉鎖)'의 의미는 '문 따위를 닫아걸거나 막아 버림'이므로 이 세 단어의 공통된 의미는 '막다'이다.

[28~30] 예술 제재

<출전> 이성재, 「재미있는 우리 국악 이야기」

**28. [출제의도]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마지막 문단을 통해 산조에는 여러 유파가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유파별 특징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① 둘째 문단에 산조의 개념과 형식이 설명되어 있다. ② 셋째 문단에 산조의 연주 방식이 설명되어 있다. ③ 여섯째 문단에 산조의 구성과 장단이 설명되어 있다. ⑤ 넷째 문단에 산조에 사용되는 악기의 종류가 언급되어 있다.

**29.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판소리는 서민들의 애환과 사랑, 슬직한 감정을 사람의 목소리로 토해 낸 것이고, 산조는 악기 소리로 풀이해 놓은 것이다. ② 고수와 관객의 추임새를 통해 연주자는 더욱 흥을 내 연주에 몰두할 수 있다. 추임새는 연주자와 고수와 관객을 하나로 맺어 주는 기능을 하지만, 연주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빠른 산조 가락을 연주하기 위해 정악에서 사용하던 악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악을 연주할 때 쓰는 악기를 작게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④ 산조는 휘모리장단과 같은 매우 빠른 장단으로 끝나면서, 듣는 사람을 신명의 극단으로 이끌고 올리게 된다. ⑤ 산조는 스승에게서 배운 대로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재창조해 또 다른 자기 세계의 음악을 이루어 내게 된다.

**30.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중심 소재를 다른 대상과 관련지어 이해하기**

시나위는 무당의 춤에 맞추어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의 숨씨가 발전해 이루어진 음악으로 춤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산조와 춤의 연관성을 언급한 내용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이 글에 있는 '~ 옥체를 벗어던진 영혼을 한바탕 춤판으로 이끈다. 자신을 잊고 나을나을 마음속으로 춤을 추는 사이 ~' 부분은 관객이 산조의 연주에 몰입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31~34] 사회 제재  
<출전> 김경환·김종석, 「랜큐의 경제학」

**31. [출제의도] 글쓴이의 궁극적인 집념 의도 파악하기**

이 글은 경제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각 개인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네 가지의 측면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는 경제 주체들이 이 네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라는 글쓴이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마지막 문단에서 '사람들은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득이나 비용의 크기가 변화하면 선택을 달리하게 된다'라고 전제 한 뒤, '공급자와 수요자의 선택에 있어서 가격이라는 경제적 유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경제적 유인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넷째 문단에서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선택의 한계이득이 한계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경제적 선택과 개인의 기호, 취향 등의 영향 관계는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④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⑤ 셋째 문단에서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다른 선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기회비용'이라고 밝혔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3.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 이해하기**

생산점을 C에서 A로 바꾸면, 사과 생산량이 400상자 늘어나는 대신 배 생산량은 200상자 줄어든다. '기회 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다른 선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의미하므로, 생산점을 C에서 A로 바꾸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포기한 배 200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다. ① 셋째 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농가 주인은 사과와 배의 기회비용을 따져보고 A, B, C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② 생산점을 A에서 B로 바꾸면 배 생산량은 100상자 늘어나지만, 사과 생산량은 200상자 줄어든다. ③ 생산점을 B에서 C로 바꾸면, 배 생산량이 100상자 늘어나는 대신 사과 생산량은 200상자 줄어든다. 그러므로 포기한 사과 200상자와 사과의 한계이득 6,000원을 곱한 1백 20만 원이 기회비용이 된다. ⑤ 마지막 문단의 내용에서 공급자는 경제적 유인에 따라 반응하여, 수익성이 증가하면 생산량을 증대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과의 수익성이 증가하면 농가 주인은 사과의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C보다는 B를, B보다는 A를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34. [출제의도]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쓰기**

'비교(比較)'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을 의미하고, '빗대다'는 '곧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빙 둘러서 말하다'는 의미이므로 '비교해서'를 '빗대어서'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교해서'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단어는 '견주어서'이다. ① '대기(待機)'는 '때나 기회를 기다림'의 의미이므로 '대기하고'는 '기다리고'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지불(支拂)'은 '돈을 내어 줌. 또는 값을 치름'의 의미이므로, '지불할'은 '지름'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상승(上昇)'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감'의 의미이므로, '상승하면'은 '오르면'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증대(增大)'는 '양을 늘리거나 규모를 크게 함'의 의미이므로, '증대시키고자'는 '늘리고자'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35~38] 과학 제재  
<출전> 정재승,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35. [출제의도] 적절한 중심 화제 파악하기**

헬리콥터가 공중으로 뜨는 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된 과학 원리를 서술한 글이므로 '헬리콥터의 비행 원리'가 중심 화제이다.

**36. [출제의도] 글 속에 등장한 두 대상의 속성을 비교하기**

'헬리콥터'는 '비행기'와 달리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의 모양이 동일하지만, 날개의 각도를 달리하여 수직이륙이 가능하다. ① '헬리콥터'만 회전 날개의 각도 조절로 이륙한다. ② '비행기'는 본체의 전진 이동으로 양력이 발생하지만, '헬리콥터'는 프로펠러의 회전력에 의해 양력이 발생한다. ③ 이륙 과정에서 안정성 문제가 언급된 것은 '헬리콥터'이다.

**37. [출제의도] 헬리콥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A]에서는 수직으로 서 있는 꼬리 프로펠러가 본체의 회전력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진술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 프로펠러(㉠)의 회전력이 꼬리 날개(㉡)의 회전력을 상쇄시킨다는 내용은 글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38. [출제의도] 낱말의 문맥상 의미 찾기**

이 글의 '윗면과 아랫면이 똑같이 생겼다'의 '생겼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사전적 의미이므로 '그녀는 이국적으로 생겼다'의 '생겼다'와 유사한 의미이다. ①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의 의미이다. ② '일의 상태가 부정적인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는 말'이다. ③ '어떤 일이 일어나다'의 의미이다. ⑤ '자기의 소유가 아니던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다'의 의미이다.

[39~43] 고전시가 수필 복합 제재  
<출전> (가) 윤선도, 「어부사시사」  
(나) 정철, 「성산별곡」  
(다) 이태준, 「가을꽃」

**39.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하기**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대상에 대한 예찬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에서는 '수국'에서의 삶, (나)에서는 화자가 '성산'에 머물면서 느낀 가을 풍경의 아름다움, (다)에서는 '가을꽃'의 다양한 모습과 가치를 예찬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두 작품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하기**

(가)에서는 '석양이 비치니 천산(天山)이 금수(錦繡)로구나'라는 구절에서 풍경의 아름다움을 금수(수놓은 비단)에 비유하였고, (나)에서는 '수경궁', '광한전' 등의 시어를 통해 아름다운 풍경을 비유적으로 드러내었다. 따라서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은 '비유의 방식으로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이다.

**41. [출제의도] 두 작품의 시어 비교하기**

(가)의 '석양'과 (다)의 '달'을 비교할 때, '석양'은 '천산'을 '금수'처럼 아름답게 보이게 해 주고, '달'은 '미단이엿 꽃'을 비추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이들은 모두 대상이 가진 본래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소재이다.

**42. [출제의도] 시어를 통한 작품 감상하기**

(나)의 마지막 구절은 적선(이태백)이 달이 물에 비춰지자 너무나 아름다워 건지려고 하다가 그만 빠져 버렸다는 일화를 통해, 가을밤의 달이 주는 아름다움을 보다 감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적선'이 물에 빠진 모습을 축언하게 여기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3. [출제의도] 작품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가을꽃들은 아지랑이와 새소리를 모른다. 찬 달빛과 늙은 벌레 소리에 피고 지는 것이 그들의 슬픔이요'라는 구절을 통해, 따스한 봄날이 아닌 차고 쓸쓸한 가을날 피고 지는 가을꽃들에 대해 작가가 안쓰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또한 명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작가가 '가을꽃들의 모습에서 삶의 애상감에 빠져들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4~47] 고전 소설 제재  
<출전> 작자 미상, 「장화홍련전」

**4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흥녀 허씨', '용림한 좌수' 등의 표현에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직접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계모인 흥녀 '허씨'가 정실부인의 딸들인 '장화'와 '홍련'을 흥계를 통해 가정에서 축출하고, '장화'와 '홍련'이 원혼이 되어 '부사'에게 원통함을 풀이 주기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 간의 관계에서 빚어진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장쇠’가 ‘장화’를 미워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제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평가할 때, ‘장쇠’는 어머니인 ‘허씨’의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② ‘좌수’는 ‘남이 알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허씨’의 말에 ‘장화’를 죽음으로 내놓고 있다. ③ ‘부사’는 ‘흥녀’의 말과 사실이 어긋남이 없으나, 증거물로 내보이는 ‘낙태한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④ ‘장화’ 자체는 원혼이 되어 부사에게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다. ⑤ ‘흥녀’는 ‘거짓 자결하는 체’하며 ‘좌수’의 결단을 유도하고 있다.

**46.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허씨’는 시간이 지체되면 ‘장화’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장차 가문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장화’를 빨리 처지할 것을 ‘좌수’에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가져올 부정적인 미래의 결과를 언급하며, 사태 해결의 시급함을 들어 좌수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에서 ‘흥련 자매’는 순 임금의 옛 이야기를 들어 계모 ‘허씨’를 믿지 말 것과 ‘허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원통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47. [출제의도] 상황에 적절한 한자 성어 찾기**

①은 흥녀 ‘허씨’가 쥐의 꼬집을 벗기고 피를 발라 ‘장화’가 낙태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고, ‘좌수’를 미혹하고 있는 장면이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던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잠을 자다가 뜻밖의 크나큰 번고를 겪고 있으므로 ‘창천벽력’ 즉,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상황이다. ②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③ 자신이 한 대로 보답을 받는다는 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과 같이 쓰일 수 있다. ④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을 의미한다. 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48 ~ 50] 언어 제제  
<출전> 최전승 외 3인, 「국어학의 이해」

**48.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상하관계는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이고, 전제는 하나의 문장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명제를 가리킨다.

**49. [출제의도] 글의 핵심 개념 파악하기**

‘전제는 하나의 문장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다른 명제를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철수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에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① ‘영희는 어제 산 책을 읽었다.’는 ‘영희가 어제 책을 샀다.’가 전제이다. ③ ‘그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는 키가 크다.’는 ‘그 동물원에는 침팬지가 있다.’가 전제이다. ④ ‘김 순경이 보석을 훔친 도둑을 붙잡았다.’는 ‘도둑이 보석을 훔쳤다.’가 전제이다. ⑤ ‘나는 저녁 늦게 간식을 먹었다.’가 전제이다.

**50. [출제의도]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기**

전제를 가진 문장은 부정하여도 같은 전제를 갖게 된다. 따라서 ‘ㄱ이 거짓이 되더라도 전제인 ‘A나라에 왕이 있다.’는 참이 된다. ③ ‘A나라의 왕은 미혼이다.’는 ‘A나라의 왕은 배우자가 없다.’를 함의하고 있다. 미혼이면 당연히 배우자가 없기 때문이다. ④ ‘ㄱ이 거짓이 되면 ‘A나라의 왕은 미혼이 아니다.’가 되고, 이것은 ‘A나라의 왕은 배우자가 없다.’와 함의관계가 될 수 없다.